

## Colon(:)의 기능·용례 및 영한 번역시 번역전략

김도훈  
(부산외대)

### 1. 서론

본 연구는 영어 문장부호 콜론(colon)의 번역에 관한 사례를 연구하여 번역 전략을 고찰한다.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 [1] 콜론(:)의 기능 및 용법은 무엇인가?
- [2] 영한 번역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 콜론의 번역전략은 무엇인가?

상기 연구 문제 [1]의 경우, 연구 문제 [2]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부호 콜론의 기능 및 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에 대한 것이다. 한글에서는 문장부호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sup>1)</sup> 있지만, 영어에는 문장부호에 대

---

1) 한글의 경우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문장부호의 용법이 예문과 함께 기술되어 있다. 한글의 문장부호 쌍점(:)과의 심도 있는 비교를 통한 번역시 함의를 찾을 필요도 있을 것이나, 이는 지문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에 국한해 부분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한 통일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문장부호의 기능 및 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제도적으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문장부호에 대한 해석과 분석의 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서와 문체 안내서가 나와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장부호의 기능과 용례를 살펴보고 실제의 번역텍스트에서 적절한 예문을 선정하여 문장부호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하고 용법을 파악하기로 한다. 연구 문제 [2]는 영한 번역시 콜론의 번역전략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이다. 연구 문제 [1]의 기능에 해당하는 출발어 텍스트 예문에 대한 번역 예문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번역에서 발견된 문장 부호의 번역전략 중 출발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콜론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도착어 규범에 맞는 번역의 방법을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소 처방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으나, 처방을 무시한 기술번역학으로 인해 번역학이 실무와 분리되어 실제 번역 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무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간과하는 이론은 결국 번역의 다양한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Mossop 24)을 고려할 때 다소 처방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객관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다면,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일부 학자들의 추상적 논의가 번역 현실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어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Pym 336-337)에 기초하고 있다.

문장부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문장부호란 독자와의 소통을 돕는 수단이기 때문에 생각과 논리의 표현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장부호를 사용하게 되며, 문장부호 사용을 통해 단어, 구, 절 등의 연결고리 및 생략과 삽입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Long 467). 같은 맥락에서, 필자 입장에서 보자면, 문장부호는 관계 설정의 기능을 지니며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나타내어 의미 전달을 명료하게 하며(Shaw 4), 독자 입장에서는 문장부호는 독자 중심의 장치로서 독자를 돕기 위해 존재하며, 독자의 필요에 필자가 응하는 것으로(Backscheider 874) 독자로 하여금 직면하게 될 문법 및 논리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Spradley 25).

물론 대부분의 경우 단어가 문장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요소

로서 문장부호보다는 단어를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문장부호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자신의 책이 잘 팔리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출판사에 단어 하나 사용하지 않고 편지지 한복판에 ? 하나만을 적어 보냈다고 한다. 이 편지를 받은 출판사 사장 또한 답신에서 편지지 한복판에 ! 하나만을 적어 보내 왔다. Hugo의 저서가 잘 팔리고 있다는 출판사 사장의 답변임을 금방 알 수 있다(민대식 24). 이는 문장부호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일화이다.

번역에 있어 문장부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문장부호 사용의 역사가 길고 다양한 문장부호가 사용되는 영어의 경우 문장부호의 역할이 한글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한 번역시에는 영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문장부호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해 한글 용법에 맞는 방식으로 영어 문장부호의 기능을 옮길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장부호의 기능과 용법, 유사점과 차이점, 문장부호의 번역전략 등에 대한 인식은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이근희 169), 영어 등의 서구어 문장부호가 한글에 그대로 전이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한글 문장부호에 대한 인식이 낮다보니 문장부호의 오역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역의 사례로 입증되기 때문에(한만열 194-195)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러 문장부호 중에서도 영어 문장부호 콜론 등의 경우 한글의 쌍점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기능 및 용법이 달라 번역시 어려움을 초래하며 세심한 번역 전략의 연구 및 사용이 필요하기에(김정우 193-201) 본고는 영한 번역시 나타나는 영어 문장부호 콜론의 기능 및 용법을 다양한 이론서에 기초해 균형 있게 확립한 후 이를 토대로 문장부호의 번역전략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할 것이다. 참고로, 본고에서 사용된 예문은 실제 텍스트에서 선별한 것들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임의로 고안된 예문에 기초해 용법을 제시하고 번역전략을 논하고 있어 한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본고가 실제 용례를 통해 용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번역전략을 제시한다면 효용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콜론(:)의 기능 및 용법

콜론은 16세기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리스어 ‘kolon<sup>2)</sup>’에서 유래했다(Allen 66). 앞의 문장을 강조하면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하며(Alward & Alward 79; Shaw 63), 독자들에게 콜론에 이어질 부분이 앞의 절과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미리 알려준다(Strunk & White 7-8). 일반적으로 쉼표보다는 강조의 효과가 더 크고 세미콜론보다는 분리의 성격이 약하고 대시보다 형식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콜론의 주요한 기능은 앞 문장에 대한 예시 및 세부 내용 열거, 동격 및 강조, 보충 및 부연설명, 인용이다. 그 외에도 콜론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종종 콜론과 세미콜론의 기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세미콜론으로 연결되는 두 부분이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콜론에 비해 균형관계에 있다(Allen 37). 다시 말해 세미콜론 앞의 절과 뒤의 절의 길이 및 내용상의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상기 언급한 콜론의 기능을 용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2.1. 예시 및 열거의 기능

콜론은 앞 문장에 대한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열거할 때 사용된다. 앞 문장이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문장이고, 이어지는 부분이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또는 열거일 때 콜론이 사용될 수 있다(Allen 37). 아래를 살펴보며 논의를 이어가자.

(1) 예시 및 열거의 기능을 하는 콜론의 예시

a) He wrote bite-sized philosophies about living with death's shadow:

“Accept what you are able to do and what you are not able to do”;  
 “Accept the past as past, without denying it or discarding it”; “Learn to forgive yourself and to forgive others”; “Don't assume that it's too late to get involved.” (Albom 18)

b) I kept picturing him there, in the house with the Japanese maple and the hardwood floors, counting his breath, squeezing out every moment

2) 큰 가지(limb)라는 뜻이며, 문법적으로는 절(clause)을 의미한다.

with his loved ones, while I spent so many hours on things that meant absolutely nothing to me personally: movie stars, supermodels, the latest noise out of Princess Di or Madonna or John F. Kennedy, Jr.  
(Albom 41-42)

상기 (1a)에서 볼 수 있듯이 절 4개가 콜론 다음에 열거되어 있다. 각 절은 모두 앞 문장에서 언급된 ‘philosophies(단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콜론을 이용해 열거하고 있다. 콜론 없이 피리어드만으로 문장을 구성했다라면 두 부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보는 것은 힘들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b)의 경우, ‘things that meant absolutely nothing to me personally(완전히 나에게 무의미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인 ‘movie stars’, ‘supermodels’, ‘the latest noise out of Princess Di or Madonna or John F. Kennedy, Jr.’를 콜론을 이용해서 열거하고 있다. 상기의 경우 ‘philosophies’와 ‘things’에 대한 열거를 문장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콜론은 일반적인 문장과 이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열거를 나타낼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2.2. 동격 및 강조의 기능

콜론은 동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즉, 전체문장 중에서도 특히 어떤 특정 단어를 설명하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콜론이 그 효과를 낼 수 있다(Terban 37). 분명 보충 및 부연설명 기능과 중복되기는 하나 특정 단어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강조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토록 하자.

(2) 동격 및 강조의 기능을 하는 콜론의 예시

- a) The next Tuesday, I arrived with the normal bags of food—pasta with corn, potato salad, apple cobbler—and something else: a Sony tape recorder. (Albom 62)
- b) When the administration said, “If you don’t give these students grades, they will all fail,” Morrie had a solution: “Let’s give them all As.” (Albom 111)

(2a)에서는 ‘something else’의 구체적인 내용인 ‘Sony tape recorder’가, (2b)에서는 ‘solution’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Let’s give them all As.(학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줍시다.)’라는 해결책이 콜론 다음에 이어진다. (2a)의 ‘something else’와 (2b)의 ‘solution’에 대한 내용을 앞 문장 속에 넣지 않고 콜론을 사용해 따로 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강조의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 예시, 열거, 강조, 보충, 부연설명 등은 구체적인 전후 문맥에서 결정되는 내용상의 기능인 데 비해 동격과 인용은 구조적인 형식상의 기능으로 보인다.

이처럼 콜론은 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일 경우보다는 특정 단어에 대한 동격을 나타내어 설명이나 강조를 할 때 더 효과적이다(Terban 37).

### 2.3.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

콜론은 앞 문장에 대한 보충 및 부연설명을 할 때도 쓰인다. 이 경우 위에서 살펴본 2.2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앞의 문장에 대한 설명이며 콜론 앞의 문장은 대체로 일반적인 문장이 온다(Allen 37). 하기 예문을 살펴보자.

(3)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하는 콜론의 예시

- a) The girls were divided: those who didn’t care much about what Mrs. Myers thought chose watching game shows on TV, and those like Wanda Kay Moore who were still aiming for As chose reading Good Books. (Paterson 42)
- b) And out of these they came running again with a multitude of treasures—dolls and trumpets, tea-sets, picture and story books: such dolls, as beautiful as fairies, trumpets that sounded like the clarions of angels, tea-sets that filled themselves with feasts for kings, books from whose covers sprang elves and heroes to be the children’s play-fellows. (Farjeon 115)
- c) Same for loneliness: you let go, let the tears flow, feel it completely—but eventually be able to say, “All right, that was my moment with loneliness. I’m not afraid of feeling lonely, but now I’m going to put

that loneliness aside and know that there are other emotions in the world, and I'm going to experience them as well.” (Albom 105)

(3a)의 앞 문장에서는 ‘The girls were divided(여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콜론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3b)의 경우, 콜론의 앞부분에서 열거된 ‘doll’, ‘trumpets’, ‘tea-sets’, ‘picture’, ‘story book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콜론 다음에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다. (3c)의 경우는 본문 바로 앞 문장에서 ‘감정의 변화를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맥락의 내용이 있다. 바로 다음에 예시 (3c) ‘Same for loneliness (외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문장에 대한 설명이 앞 내용과 관련해서 콜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어진다. 콜론은 이처럼 앞 문장에 대한 보충 및 부연설명을 할 때 사용된다.

## 2.4. 인용의 기능

콜론은 인용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보통 긴 문장을 인용할 때는 한 줄을 비우고 들여쓰기(indentation)를 해서 표시하며 인용하는 문장이 짧다면 앞 문장에 이어 바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Merriam-Webster 7). 아래를 살펴보자.

(4) 인용의 기능을 하는 콜론의 예시

a) Miss Edmunds picked a few odd chords and then began to sing, more quietly than usual for that particular song:

I see a land bright and clear  
And the time's coming near  
When we'll live in this land  
You and me, hand in hand . . . (Paterson 39)

b) The King sipped his coffee and said: ‘This is the day for the Suspicious Characters to be beheaded.’ (Farjeon 25)

예시 (4)에서 알 수 있듯이 콜론은 인용할 때 사용된다. (4a)와 같이 비교적

긴 문장을 인용할 경우에는 한 줄을 비우고 들여쓰기를 하여 인용하는 경우(블록 인용)가 많으며 (4b)와 같이 비교적 짧은 문장은 앞 문장과 바로 연결해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할 수도 있다(Merriam-Webster 7).

## 2.5. 기타 기능

콜론은 아래와 같이 편지나 연설문에서 인사말 다음에도 사용되며 시간과 분 사이, 제목과 부제 사이, 성서의 구와 절 사이, 비례를 표시할 때도 사용된다. 아래의 다양한 예문을 보도록 하자.

(5) 기타 기능을 하는 콜론의 예시

a) Ladies and Gentlemen:

b) A PROFESSOR'S FINAL COURSE: HIS OWN DEATH

(Albom 19)

c) In the campus bookstore, I shop for the items on Morrie's reading list.

I purchase books that I never knew existed, titles such as Youth:

Identity and Crisis, I and Thou, The Divided Self. (Albom 39)

(5a)는 연설문과 편지에서 인사말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는 예이다. (5b)는 교수의 마지막 수업의 제목을 콜론으로 연결했고, (5c)의 경우 책의 제목과 부제 사이에 콜론이 위치한 경우이다.

## 3. 콜론(:)의 번역전략

제2장의 영어 문장부호 해석기준을 토대로 하여, 아래에서는 영한 번역시 활용할 수 있는 콜론의 번역전략을 크게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번역전략,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번역전략, 동일(유사) 단어를 반복하는 번역전략, 인용을 나타내는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번역전략, 도착어의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번역전략의 총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각각의 전략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3.1.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번역전략

출발어 텍스트의 콜론을 도착어 용법에 적절하며 기능적으로도 등가를 이루도록 하는 번역전략의 하나로 도착어 텍스트에서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크게 의존명사 ‘~등’을 사용하는 방법과 의존명사 ‘~것’을 사용하여 종결어미로 처리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6) 의존명사를 사용하여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1

- a) There were foods he had never even heard of: lichee nuts and dried honey dates and curious cakes of rice flour and nuts and red sugar, and horned fish from the sea and many other things. (Buck 207)
- b) 야자열매라든지 그밖에도 여러 가지 쌀가루로 만든 과자와 과일과 붉은 사탕가루로 간을 친 고기 등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사들였다. (강대건 옮김 189)

예시 (6a)에서 사용된 콜론은 ‘foods’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콜론 다음에 열거함으로써 예시 및 열거 기능을 수행한다. 이의 번역인 (6b)에서는 콜론 다음을 수식어구로 처리하여 먼저 번역한 다음 이어 콜론 다음을 번역했다. 이 때 ‘앞에서 말한 사실들 또한 그와 비슷한 것’, ‘그 밖의 것들’을 의미하는 ‘~등’이라는 의존 명사를 사용하여 앞에서 나열한 ‘야자열매’, ‘쌀가루로 만든 과자’, ‘과일’, ‘붉은 사탕’이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의 예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착어 용법에 적절하며, 의존 명사 ‘~등’을 이용함으로써 콜론을 통해 나타내하고자 했던 예시 및 열거 기능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존명사 ‘~것’을 사용한 종결어미 처리 방법이 있다. ‘~것’은 사실이나 인용임을 강조하거나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주로 ‘~는/ㄴ 것이다’의 꼴로 쓰인다. 주로 콜론이 동격 및 강조,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할 경우에 ‘~것이다’로 처리할 수 있다.

#### (7) 의존명사를 사용하여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2

- a) Every one suspects himself of at least one of the cardinal virtues, and this is mine: I am one of the few honest people that I have ever known. (Fitzgerald 66)

- b)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본적인 덕목 중 적어도 한 가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도 그러한 덕목이 있다. 나 자신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정직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김육동 옮김 88)

상기 예시 (7a)에서 사용된 콜론은 동격 및 강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콜론 앞의 ‘mine’의 내용을 콜론 다음에 설명하고 있으며, 콜론을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의 번역인 (7b)에서는 콜론 앞부분과 콜론 뒷부분을 따로 떼어 독립적인 문장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뒷문장이 앞 문장에서 언급한 ‘나의 덕목’임을 나타내기 위해 종결어미를 ‘~것이다’로 마무리하고 있다. 전술했듯, ‘것’은 사실이나 인용임을 강조하거나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주로 ‘~는/ㄴ 것이다’의 꼴로 쓰인다.<sup>3)</sup> 따라서 (7b)는 문장을 분리시키면서 두 번째 문장을 ‘~것이다’로 마무리함으로써 (7a)에서 콜론이 수행하는 동격 및 강조의 기능을 대등하게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7b)는 도착어 용법에도 적절하며 (7a)의 콜론과도 기능적으로 동가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콜론의 번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 (8) 의존명사를 사용하여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3

- a) But it was noticed that these two were never in agreement: whatever suggestion either of them made, the other could be counted on to oppose it. (Orwell 19-20)
- b) 그러나 이들 둘은 결코 의견을 같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른 한 쪽이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정기 옮김 61)

예시 (8a)에서 사용된 콜론은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콜론 뒷부분은 콜론 앞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번역인 (8b)에서는 콜론 앞뒤를 따로 떼어 별개의 문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뒷문장을 ‘~것이였다’로 마무리함으로써 앞 문장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8b)는 도착

3)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것’은 일종의 관계 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 용법에 적절하며 (8a) 콜론의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과도 기능적으로 등가를 이룬다.

요약컨대, 특히 콜론이 예시 및 열거 기능을 할 경우, 콜론 다음을 수식어 구로 처리하여 먼저 번역하고 의존명사 ‘~등’으로 연결하여 콜론 앞부분을 이어 번역할 때 자연스러울 수 있다. 콜론이 동격 및 강조,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을 한다면, 많은 경우에 의존명사 ‘~것’을 이용한 종결어미 처리방식이 자연스럽다.

### 3.2.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번역전략

출발어의 콜론을 옮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번역전략이 있다. 콜론은 앞뒤 문맥의 관계가 동격이거나 설명, 원인, 인용의 관계로 도착어에서 접속어를 이용하여 앞 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준다면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있다(이근희 162). 광성희 역시 출발어 텍스트에서 콜론이 쓰였을 경우 도착어 텍스트에서 이를 접속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123). 아래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9)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여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1

- a) “She was willing to do everything in the world for me except the one thing I wanted: to leave me alone.” (Maugham 161)
- b) “그녀는 나를 위해 무슨 일이고 기꺼이 해줬지만,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만은 예외였지. 즉, 나를 가만히 내버려달라는 것만은 말이요.” (김정옥 옮김 225)

예시 (9a)의 경우 콜론은 ‘the one thing I wanted’의 내용을 콜론 다음에 나타냄으로써 동격 및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의 번역인 (9b)에서는 콜론 앞뒤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즉’이라는 접속부사로 연결하고 있다. 접속부사 ‘즉’은 ‘다시 말하여’의 뜻으로, 앞 문장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단 한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9b)는 ‘즉’이라는 접속부사를 이용해 뒷문장이 앞 문장의 ‘단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동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장을 분리시키면서 휴지

를 나타내므로 강조의 효과도 내고 있다. 따라서 (9b)는 도착어 용법에도 적절하며 (9a)의 콜론과 기능적으로도 등가를 이루고 있다.

(10)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여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2

- a) He was constantly wounded, and yet his good nature was such that he could not bear malice: the viper might sting him, but he never learned by experience, and had no sooner recovered from his pain than he tenderly placed it once more in his bosom. (Maugham 74)
- b) 이처럼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는 절대로 남을 원망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설령 독사에게 물렸다 해도 상처가 다 나으면 곧바로 또 그 뱀을 가슴에 살며시 끌어안을 그런 인간이었다. (김정옥 옮김 102)

상기 예시 (10a)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내용의 앞 문장에 대한 보충 및 부연 설명을 콜론 다음에 가정의 상황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콜론이 보충 및 부연설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의 번역인 (10b)의 경우, 콜론 앞뒤를 따로 떼어 두 문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뒷 문장에서는 앞 문장에서 언급된 ‘그’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해서 말하고 있다. 이 때, 두 문장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가령’ 혹은 ‘설사’와 같은 의미인 ‘설령’이라는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요약컨대, 출발어 텍스트의 콜론을 도착어 텍스트에서 번역할 경우, ‘즉’이나 ‘다시 말해서’ 혹은 ‘설령’과 같은 접속사 및 접속부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착어 용법에 자연스럽게 콜론의 기능과도 등가를 이룰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출발어 텍스트의 콜론이 동격 및 강조, 보충 및 부연 설명 기능을 할 경우에 도착어 텍스트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3.3. 동일(유사) 단어를 반복하는 번역전략

영한 번역시 콜론을 옮길 때 기능적 등가를 달성하도록 하는 또 다른 번역 전략으로는 동일(유사) 단어를 반복하는 전략이 있다. 이 전략은 콜론이 동격 및 강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용할 것이다.

(11) 동일(유사) 단어 반복 사용을 통해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1

- a) For me the watches of that long night passed in ghastly wakefulness; ear, eye, and mind were alike strained by dread: such dread as children only can feel. (Bronte 23)
- b) 잠이 오지 않는 긴 밤을 나는 정신이 말뚱말뚱한 채 보냈다. 어쩌나 무서운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귀도 눈도 마음도 어린이만이 느끼는 소름으로 똑같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배영원 옮김 35)

상기 예시 (11a)에서 사용된 콜론은 동격 및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콜론 앞의 ‘dread’를 콜론 다음에 다시 한 번 표기함으로써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11b)에서는 이를 별개의 문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 문장에서 언급된 ‘소름’을 뒷문장에서는 ‘소름’이라는 동일한 단어와 ‘신경이 곤두서다’라는 유사한 의미의 다른 표현을 이용하여 강조의 효과도 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11b)는 TL 용법에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 동일 단어 및 유사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11a)의 콜론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강조의 효과도 제대로 반영하여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출발어 텍스트의 콜론을 도착어 텍스트에서 번역시, 유사단어나 유사표현 등을 반복하여 사용한다면, 도착어 용법에 자연스럽게 콜론의 기능과도 등가를 이룰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 3.4. 인용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설명하는 번역전략

출발어 텍스트의 콜론을 도착어용법에 적절하며 기능적으로도 등가를 이루도록 하는 번역전략의 하나로 출발어 텍스트의 콜론을 도착어 텍스트에서 ‘다음’ 혹은 ‘이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출발어 텍스트에서는 콜론을 사용함으로써 콜론 다음에 인용문이 올 것임을 암시할 수 있는 반면, 도착어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장부호가 없다. 이 경우 도착어에서는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음과 같이 썼다.’ 또는 ‘이런 말을 했다.’등과 같이 ‘다음’이나 ‘이런’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문장을 인용문 앞에 둬으로써 콜론의 인용 기능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대부분 콜론이 인용의 기능을 할 때, 도착어 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전략이다. 아래를 살펴보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자.

(12) 인용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용하여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1

- a) One morning Mrs. Strickland sent me round a note to say that she was giving a dinner-party that evening, and one of her guests had failed her. She asked me to stop the gap. She wrote:

It's only decent to warn you that you will be bored to extinction. It was a thoroughly dull party from the beginning, but if you will come I shall be uncommonly grateful. And you and I can have a little chat by ourselves. (Maugham 24)

- b) 어느 날 아침 스트릭랜드 부인으로부터 전갈이 왔는데, 손님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못 오게 되었으니 나에게 그 자리를 대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썼다.

선생님께서 무척 지루하게 느끼시리라는 것을 미리 예의상 말씀드립니다. 원래 아무 재미도 없는 파티지만 선생님께서 와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잠깐이나마 선생님과 돌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거구요. (안홍규 옮김 24-25)

예시 (12a)에서 사용된 콜론은 인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편지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내용이 길어 따로 떼어 인용하고 있다. 이의 번역인 (12b)에서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단락으로 분리시켜 글자 크기를 작게 줄여 인용문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용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썼다’라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편지글을 직접 인용할 것임을 미리 밝히고 있다. 인용에 관해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규칙이나, 긴 문장 인용에 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12b)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3) 인용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용해 통해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2

- a) I remember saying to him: “Look here, if everyone acted like you, the world couldn't go on.” (Maugham 60)
- b) 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것 보세요. 모두가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송무 옮김 76)

예시 (13a)의 경우, 콜론은 ‘I’가 ‘him’에게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3b)에서는 이를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라 밝히면서 인용문이 올 것임을 암시하고 이어 인용 내용을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TL 용법에 적절하다. TL에서 큰따옴표는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그리고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쓰므로, (13b)는 (13a)의 직접 대화 내용을 인용하기 위한 콜론의 기능을 잘 살려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4) 인용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용해 통해 콜론을 옮기는 번역전략 3

- a) “He said: “I came to ask you to lend me twenty francs.”” (Maugham 79)
- b) “그랬더니 뭐겠는지 아냐. 자기는 돈 이십 프랑을 빌리러 왔다는 거야” (송무 옮김 99)

예시 (14a)의 경우, 콜론은 ‘He’의 말을 직접 인용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의 번역인 (14b)에서는 대화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큰따옴표 안에서 콜론 다음의 내용을 간접인용하고 있다. 이때 주어 ‘나’로 직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이라 바꾸었으며 서술어를 ‘왔다는 거야’라 번역함으로써 간접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컨대, 출발어 텍스트에서 인용의 기능을 하는 콜론을 도착어 텍스트에서 번역시, ‘다음’이나 ‘이런’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문장으로 번역한다면, 도착어 용법에 자연스럽게 콜론의 기능과도 등가를 이룰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은 콜론이 인용의 기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콜론 다음에 인용문이 나올 것임을 나타내주는 문장부호가 도착어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용문을 번역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혹은 ‘이런 말을 하였다.’와 같은 문장을 보여줌으로써 다음에 인용문이 나올 것임을 암시한다면, 출발어 텍스트의 콜론과 대등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5. 도착어의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번역전략

영한 번역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번역전략으로는 도착어의 문장부호

를 사용하는 전략이 있다.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자.

(15) 도착어의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번역전략 1

- a) There were foods he had never even heard of: lichee nuts and dried honey dates and curious cakes of rice flour and nuts and red sugar, and horned fish from the sea and many other things. (Buck 207)
- b) 그 중에는 그가 들어본 일도 없는 식료품이—여주, 대추를 꿀에 말린 것, 쌀가루나 호도, 붉은 설탕으로 만든 맛있는 과자, 뽕죽한 바다생선, 그밖에 이것저것 등—다수 있었다. (서소희 옮김 195)

상기 예시 (15a)에서 콜론은 예시 및 열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콜론 앞에서 언급된 ‘foods’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콜론 다음에 열거하고 있다. 이의 번역인 (15b)에서는 줄표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예를 나열하고 있다. 한글 줄표의 보충 및 부연설명의 기능은 영어 문장부호 콜론의 예시 및 열거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콜론을 줄표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방법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줄표를 사용하지 않고 ‘식료품, 예컨대 여주, 대추 등 다수였다’의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자연스럽다.

참고로, 전술했듯 영어의 콜론과 모양이 같은 한글 문장부호로 쌍점이 있다. 비록 쌍점과 콜론의 기능에 중복되는 부분<sup>4)</sup>이 있기는 하나 콜론을 쌍점으로 옮기는 번역은 찾기가 힘들다. 이는 콜론과 쌍점의 사용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5)</sup> 또한 문장부호의 사용이 영어에 비해 보편화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보인다. 문장부호 사용이 보편화되고 사용에 있어 제약이 완화된다면 영어의 콜론을 한글의 쌍점으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 줄표의 경우 현재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용되고 있는 한글 문장부호지만, 그 유래를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시기에 영어 -(대시)의 기능 및 용법 중 일부를 받아들여 모방한 부호이기때 순수한 도착어 문장부호로 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 5) 쌍점 앞에는 단어나 구 형태의 짧은 표제(소표제)를 사용해야 하며, 보충 및 부연설명 기능을 수행하는 쌍점의 경우 쌍점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짧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등, 사용이 까다로운 이유로 번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영어 문장부호 콜론의 기능별 용법을 분석하고 영한 번역시 출발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콜론을 기능적 등가를 유지하면서 도착어로 옮길 수 있는 번역전략을 기술하려 노력하였다.

본론의 2장에서는 콜론의 기능을 구체적인 용례에 기초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중 주요한 내용을 본론의 논의 순서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콜론은 구체적인 항목의 열거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동격 및 강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세 번째로는 보충 및 부연설명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콜론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인용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3장에서는 영한 번역시 콜론을 옮길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번역전략으로,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번역전략, 접속사(접속부사)를 사용하는 번역전략, 동일(유사) 단어를 반복하는 번역전략, 인용을 나타내는 문장을 삽입하는 번역전략, 도착어의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번역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영어 문장부호 콜론의 기능 및 용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한 번역시 활용할 수 있는 콜론의 번역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연구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문장부호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 영어에 15개 이상의 문장부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문장을 이루며 논리 관계를 설정하고 호흡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문장부호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고 실제 번역 교육 및 번역 실무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정우. 1996.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이론편)』. 서울: 창문사.
- 문교부. 1988(고시)/1989(시행). 『한글 맞춤법』. 서울: 문교부(고시 제88-1호).
- 민대식. 1997. 「영어의 구두점」,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1:23-52.
- 이근희. 2005. 『영한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세종대학교.
- 한만열. 2000. 「지역의 문제와 문장부호의 오용」,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2:193-214.
- Albom, M. 1997. *Tuesday with Morrie*. New York: Anchor Books.
- Allen, R. 2002. *Punctuation*. Oxford: Oxford UP.
- Alward, E. C., & Alward, J. A. 1997. *Punctuation Plain and Simple*. New York: Thomson Learning.
- Backscheider, P. 1972. "Punctuation for the Reader—A Teaching Approach", *The English Journal* 61: 874-877.
- Farjeon, E. 1955. *The Little Bookroom*. New York: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 Long, R. 1961. *The Sentence and Its Par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Merriam-Webster. 2001. *Merriam-Webster's Guide to Punctuation and Style*. Springfield, MA: Author.
- Mossop, B. 2005. What Practitioners Can Bring to Theory?: The Good and the Bad. In J. Peeters (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nslation Theory and Translation Practice* (pp. 23-29). New York: Peter Lang.
- Paterson, K. 1997. *Bridge to Terabithia*. New York: HarperCollins.
- Pym, A. 2000. "Why Common Ground is Not Automatically Space for Cooperation: On Chesterman versus Arrojo", *Target* 12.2:334-337.
- Shaw, H. 1993. *Punctuate It Right* (2nd ed.). New York: HarperCollins.
- Spradley, J. 1971. "The Agenwit of Inpoint (A Review of Punctuation)",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echniques* 4: 23-31.
- Strunk, W., Jr., & White, E. B. 2000. *The Elements of Style* (4th ed.). New York: Macmillan.

Terban, M. 2000. *Punctuation Power*. New York: Scholastic.

<번역전략 제시에 사용된 출발어 및 도착어 문헌>

Bronte, C. 2000. *Jane Eyre*. New York: The Modern Library.

배영원 옮김. 2005. 『제인에어』. 서울: 신원문화사.

Buck, P. S. 1994. *The Good Earth*. New York: Pocket Books.

강대건 옮김. 1987. 『대지』. 서울: 중앙출판공사.

서소희 옮김. 1983. 『대지』. 서울: 명문당.

Fitzgerald, F. S. 2000. *The Great Gatsby*. London: Penguin Books.

김옥동 옮김. 2003. 『위대한 개츠비』. 서울: 민음사.

Maugham, W. S. 1994. *The Moon and Sixpence*. Seoul: Dosol.

김정욱 옮김. 2003. 『달과 6펜스』. 서울: 소담출판사.

송무 옮김. 2000. 『달과 6펜스』. 서울: 민음사.

안흥규 옮김. 1991. 『달과 6펜스』. 서울: 문예출판사.

Orwell, G. 1996. *Animal Farm*. London: Secker & Warburg.

이정기 옮김. 발행년 미상. 『동물농장』. 서울: 계원출판사.

[Abstract]

## Functions and Usage of Colon and Strategies to Translate Colon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Kim, Do Hun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t is of notable interest that the translation of punctuation mark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often invites 'headaches' due to punctuation system differences and that the issue has been neglected in the academic discipline of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purports to explore the various functions and usage of colon (:) and present useful translation strategies that can be employed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Explanation of the colon's functions is based on a number of widely-used style guides and grammar books, and the examples used for the explanation are taken from children's literature; the punctuation points used in such genre are relatively clear and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 usage. Based on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functions and usage, this paper selects and classifies effective translational strategies and discusses how such strategies can be deployed and what attentions should be pai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punctuation marks in the English language system, this paper limits its scope to colon, which often invite confusion and disagreement of interpretation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s the usage and function of *ssangjeom*, the "form-equivalent punctuation mark" in the Korean language, display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colon.

The author hopes the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riggering further

discussion on the translation of punctuation and to offering guidelines for those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

▶ Key Words: function of colon, punctuation, usage of colon, transfer, translation strategy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조교수

kdh8377@pufs.ac.kr

관심분야: 통역번역학(번역 문체론)

논문투고일: 2008 년 1월 7일

심사완료일: 2008 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 년 3월 8일